그때 그 사건을 아시나요?

본고는 1960년대 이후 양계업이 태동하면서 현재에 이르기 까지 양계업계의 발전과 함께 벌어졌던 각종 사건들을 월간양계에 게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모아 본 내용이다.

– 편집자주 –

간이계사 철거령

1983년 경기도 일원에 보온덮개 간이 계사에 대해 농지 불법전용으로 농토가 잠식된다는 이유를 들어 강제 철거령이 내려졌다. 당시 육계는 80%, 산란계는 30% 정도의 계사가 간이계사에서 사육되고 있는 상태에서 철거가 강행될 경우 수급차질로 인한 사회적 문제로 우려의 소리가 높았다. 이로인해 일부 약품업소에서는 간이계사는 외상사절이라고 써붙인 곳도 있었으며, 사료공장의 외상값 독촉도 대단하여 양축가들이 불안에 떨기도 하였다.(1983년 7월호)

'알먹고 키자랑 닭먹고 힘자랑'의 탄생

양계협회의 홍보 표어로 자리잡은 '알먹고 키자랑 닭먹고 힘자랑'은 지난 1986년 양계산물 소비홍보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한 양계산물 소비촉진 홍보표어를 현상공모하여 최우수 작품에 선정된 표어이다. 당시 총 1,482건이 접수되어 1, 2차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알먹고 키자랑 닭먹고 힘자랑'을 제출한 유점자 씨(충남 대전시 중구)가 최고의 영예를 차지하는 기쁨을 누렸다.

'알먹고 키자랑 닭먹고 힘자랑'은 양계협회 공식 홍보표어로 각종 공문에 사용하고 있으며, 양계산물 소비홍보 활동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1987년 1월호)

암탉 1마리, 계란 7개 40만원 부당이득 혐의로 영장

경북 영양에서는 토종닭을 훔친 10대의 부모로부터 과다한 보상금을 받아낸 닭주인이 부당이득혐의로 구속되는 일이 있었다. 영장을 받은 집주인은 집에서 기르는 암탉 1마리와 닭이 품고 있던 계란 7개를 10대 아이가 훔쳐 달아나는 것을 붙잡아 40만원을 받아냈다. 영장신청 이유는 토종닭과 계란값 33,500원과 닭장 파손비 5만원 등 피해액 83,500원 보다 너무 많은 돈을 받아 부당이득을 취했기 때문이다.(1990년 8월)